

# 한국 근현대 소설 독자 연구의 성과와 전망

전 은 경\*

## 요약

이 논문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한국 근현대 소설, 서사 관련 독자 연구를 분석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발표된 독자 연구를 데이터로 정리하고 연도 별 독자 연구의 개수와 독자 관련 연구 대상 시기, 독자 연구의 연구 대상 분석, 특정 독자 대상 분류 등을 통해 양적 실태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실제로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을 독자 수용/반응 비평, 독서 이론, 미디어 이론, 페미니즘 이론, 문화 관련 이론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방법론별 논의의 내용을 검토하고 독자 연구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다.

볼프강 이저는 텍스트의 불완전성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텍스트의 여백과 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독자이며, 이로부터 독자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완벽한 텍스트도, 완벽한 해석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텍스트는 개개의 독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재해석될 것이다. 독자 연구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독자를 바라보는 시선, 기준, 역할에 대한 논의 역시 연구자 개개인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재해석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독자 문학사 역시 새롭게 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자 연구는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소설문학사를 재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의 주제에 국한되기보다는 다양한 양태의 독자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가운데 하나로서 능동적 주체인 소설문학 독자 연구가 통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독자가 단순히 텍스트 읽기의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문학의 생산자로서의 역할 역시 담당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독자 연구는 근현대 소설의 새로운 문학사를 서술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경일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주제어: 근현대 소설, 소설문학사, 독자 문학사, 독자 연구, 독자 수용 이론, 독자 반응 이론

목차

1. 서론
2. 독자 연구의 양적 실태 분석
3. 독자 연구의 연구방법 분석
4. 독자 연구사 분석과 검토
5. 독자 연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한 소고
6. 새롭게 쓰는 독자 문학사: 능동적 주체로서의 소설문학 독자

## 1. 서론

김윤식·김현은 『한국문학사』에서 “문학사를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적 집적물을 부분과 부분의 상호 관계로 이루어지는 전체로 파악하는 일<sup>1)</sup>”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부분과 부분의 상호 관계로 이루어지는 전체로 문학적 집적물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다시 말해 문학적 집적물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관계 맺음을 통해 해석하고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어쩌면 문학사를 기술하는 저자의 해석적 시각이 개입되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성운의 『문학사의 이론』에 따르면, “문학사란 문학사 기술 방법의 구성적 이념들의 유기적 상호관계에 의해 이룩된 논리적으로 완결된 형제(format)”<sup>2)</sup>이다. 임성운은 이러한 문학사를 “실재로서의 문학사”와 “방

1)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3, 11면.

2) 임성운, 『문학사의 이론』, 소명출판, 2012, 25면.

법으로서의 문학사'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역사주의적이고 절대적인 문학사를 전자로, 상대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문학사를 후자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전자에는 문학의 역사성이 강조되고, 후자에는 현재성이 강조된다고 보았다.<sup>3)</sup>

어쩌면 후자의 방법으로서의 문학사는 역사주의적인 발전론적 문학사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시대마다 새롭게 구성되고 변화하는 문학 환경에 맞추어 “현재의 문학사”를 고민하고 서술할 수 있게 해줄지도 모른다. 또한 이전 문학사에서 정전화되었던 문학의 절대화가 부서지고, 지금까지 언급되지 못했던, 또 주변으로 밀려져 있었던, 장르 개념 안에 포괄되지 못했던 수많은 문학의 형태들이 새로운 문학사 안으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sup>4)</sup>

따라서 이러한 과거 문학에 대한 현재의 인식과 사고의 결과물로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한국 근현대문학사, 근현대소설사는 새롭게 쓰일 필요가 있다. 정전화되고, 절대적인 권위에서 내려와, 당대의 문학과 그 문학을 둘러싼 여러 “관계”들을 포착하여 다양한 문학사들을 서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소설문학사의 하나를 서술하기 위하여 ‘독자’라는 키워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제와 아우스에 의해 독자 수용 이론이 발표된 이래, ‘독자’는 텍스트 외부에서 내부로, 문학장의 주변에서 중심부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독자는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독자 연

3) 임성운은 문학의 존재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가 특정 시기, 특정한 사회, 역사적 환경을 배경으로 발생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첨가가 이루어져 발전이 아니라 축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임성운, 위의 책, 35면)

4) 임성운은 방법으로서의 문학사를 과거 문학의 실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인식이나 사고의 결과로 설명한다. 즉 문학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므로 그 문학사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각 문학사는 서로의 문학사에 대해 상대적 위치에 놓일 뿐이다. 결국 이러한 문학사 서술은 과거성보다는 현재성이,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강조된다고 보았다.(임성운, 앞의 책, 44-46면 참고)

구 역시 감상과 반응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면, 매체나 문화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독자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독자를 중심으로 한 문학사나 소설사 연구는 희소한 듯하다. 또한 이는 독자가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는 모호한 대상이라는 점, 당대가 아니라면 독자의 근거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현대 소설문학사 속에서 독자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들은 독자들을 문자화시켜 대중 매체 속에 존재감을 드러내게 했으며, 실제 텍스트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존재했다. ‘듣기’로부터 ‘읽기’로, ‘읽기’에서 다시 ‘쓰기’로 나아간 독자에 대해서, 또한 텍스트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독자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것은 새로운 문학의 탄생에 기여하고 추동해나간 ‘독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 문학사를 보다 다채롭고 풍성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sup>5)</sup>

이를 위해 먼저 현재 독자에 대한 문학사 연구는 어디까지, 또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즉 독자연구사의 실태를 먼저 점검해보고자 한다. 2000년~2023년 현재까지 연구된 한국 근현대 소설, 서사물과 연관한 독자 연구를 검토하고, 양적 실태를 분석해볼 것이다. 또한 독자 연구가 어떤 방법론과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는지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자의 키워드로 새로 쓰는 근현대 소설문학사라는 시각과 가능성에 대해 천착해보고, 향후 이러한 독자문학사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sup>6)</sup>

---

5) 2007년 개정교육과정 이후 문학은 이해와 감상으로부터, 자기내면화로, 또 더 나아가 표현하고 참여하여 생산하는 데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선주원·박기범, 『현대소설 교육론』, 역락, 2010, 17-22면) 즉 문학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텍스트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그 문학을 창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이 논문은 제63회 한국현대소설학회 전국학술대회(2023.7.7.)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발표의 기회를 주신 학회와, 토론으로 도움을 주신 이만영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2. 독자 연구의 양적 실태 분석

2장에서는 2000년 이후 독자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양적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1. 분석 방법  
키워드 검색 후, 엑셀로 데이터 정리
2. 검색 방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공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검색
  - 1) 검색 조건 : #국내 논문 / #원문 제공 / #인문학 / #한국어
  - 2) 검색어 : “문학 독자”로 검색(2000-2023년 6월) -> “독자”로 검색(2000-2008년)
  - 3) 조사 대상 기간 : 2000년 ~ 2023. 6.까지 전체 연구 목록
  - 4) 조사 대상 : 한국 근·현대 소설 / 근·현대 서사, 산문 관련만 대상
  - 5) 대상 제외 : 그림책, 동화 등 순수 아동 계열 제외(다만, 매체 관련 포함)  
소설교육이 아닌 ‘읽기’ 교육은 제외
3. 데이터 정리 항목
  - 1) 출처 : 발표연도, 저자, 제목, 학회지 등
  - 2) 연구 대상의 시기(연구 대상 연도)
  - 3) 연구 대상(신문, 잡지, 작품, 교육 등)
  - 4) 특정 독자 대상 구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 5) 연구방법 1 - 주 연구방법
  - 6) 연구방법 2 - 병행한 연구방법
  - 7) 연구방법 구체적인 이론 / 이론 관련 키워드
  - 8) 독자 중심 여부

### 1) 검색 환경과 검색 조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한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2000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발표된 전체 연구 목록을 대상으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문학 독자”로 2000년~2023년 6월 말까지, “독자”로 2000년~2008년까지 조사하였다. 검색 조건으로는 국내 논문, 원문 제공,

인문학, 한국어를 설정하였고, 이 가운데서 한국 근·현대 소설, 서사, 산문 관련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sup>7)</sup> 그림책이나 동화 등 순수 아동 계열은 제외했으나, 매체 즉 신문이나 잡지 관련의 경우에는 포함하였다.<sup>8)</sup>

데이터는 1) 출처 관련을 정리하고, 2) 연구가 분석하고 있는 연구 대상의 연도, 3) 연구대상의 분류, 4) 특정 독자 대상에 대한 구분, 5) 가장 주된 연구방법론 구분, 6) 주된 연구방법과 더불어 병행된 연구방법 구분, 7) 연구방법에 활용된 이론과 이론 관련 키워드 분석, 8) 연구가 독자 중심 연구인지, 독자 연구는 부수적인 부분인지 유무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표-1〉은 실제로 검색하고 조사한 논문 편수이다. “문학 독자”로 검색하여 대상 시기를 모두 살핀 후, 2000~2008년까지는 “독자”로 다시 검색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0~2008년까지는 검색된 대상 논문 편수가 적어서 검색어를 보다 확대하여 재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검색한 대상 논문 편수는 1차 4039편, 2차 1320편 총 5359편이었고, 이 중 독자 관련 논문으로 총 251편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표-1〉에서 보면, 독자 논문이 2005년까지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문학 독자”로 검색되는 논문의 수도 2006년까지는 50편 이하의 경우가 대다수였고, 2008년부터 급속히 많아지는 추세였다. 또 2010년부터는 “문학 독자”로 검색했을 때 200~300편까지 급속도로 증

7) 문학 독자 관련 논문이라고 한다면, 한국문학사 전반을 다루는 것이 맞으나, 본 학회가 현대소설학회임을 감안하여 우선 일차적인 작업으로 한국현대소설, 서사 관련 독자 논문을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일차 작업 이후, 한국문학사 전반에 대한 독자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사실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를 포함한 것은 이러한 매체를 읽는 독자들이 성인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체뿐만 아니라,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동화 등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근·현대에 해당하더라도 시문학이나 다른 장르의 문학일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다만, 매체를 포함하더라도 매체 자체는 도구로 활용될 뿐, 매체 연구 자체가 주목적이 아니면서 동화, 그림책 등에 한정하고 있다면, 역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둔다.

가하고 있었다.<sup>9)</sup>

〈표-1〉 독자 관련 논문 검색(KERIS 제공 한국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연도별	“문학 독자” 검색	“독자” 검색	독자논문 편수
2023	62		7
2022	209		6
2021	150		11
2020	183		9
2019	196		20
2018	300		20
2017	285		14
2016	309		17
2015	355		16
2014	337		12
2013	260		18
2012	258		14
2011	255		11
2010	221		11
2009	152		10
2008	106	239	9
2007	86	190	13
2006	45	134	11
2005	41	130	4
2004	48	143	6
2003	63	160	4
2002	51	108	1
2001	36	102	5
2000	31	94	2
합계	4039	1320	251

9) 이러한 연도별 추이는 독자 관련 저술 출판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1993년에 차봉희 편저의 『독자 반응 비평』(고려원, 1993)이 출간되고, 2000년에 앙베르토 망구엘의 『독서의 역사』(정명진 역, 세종서적, 2000)가, 2003년에 마에다 아이의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유은경, 이원희 역, 이룸, 2003), 천정환의 『근대의 책 읽기』(푸른역사, 2003)가, 2006년에, 로제 샤프티에와 굴리엘모 카발로의 『읽는다는 것의 역사』(이종삼 역,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가 출판되었다. 또한 독자 이론과 관련하여 2005년에 엘리자베드 프로인드의 『독자로 돌아가기』(신명아 역, 인간사랑, 2005)와, 2008년에 루이스 엠 로젠블렛의 『독자, 텍스트, 시·문학 작품의 상호 교통 이론』(김혜리, 엄해영 역, 한국문화사, 2008)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저술들이 출간되면서 독자 관련 연구들도 좀 더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 소설, 서사 관련 독자 논문 편수는 2006년부터 10편 이상 등장하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20편으로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자 논문이 대거 등장한 경우에는 학회에서 특집 주제로 “독자”를 설정한 경우가 많았다.

## 2) 독자 관련 연구 대상 시기

다음으로 독자 관련 연구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시기를 정리해보았다. 독자 관련 연구 대상에 대한 시기를 보면, 연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90년대 이후 현대 시기로 전체 251편 중 49편으로 전체의 약 19.5%를 차지했고, 다음은 1900년대로 전체의 13.5%, 그 다음은 1910년대와 1920년대로 각각 약 10.4%,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연구 대상 시기별 분포표

분류	대상 시기	편수	분류별 개수
1890년대	1890년대	4	8
	1890-1900	4	
1900년대	1900년대	27	34
	1900-1910	7	
1910년대	1910년대	20	26
	1910-1920	6	
1920년대	1920년대	15	25
	1920-1930	10	
1930년대	1930년대	15	19
	1930-1940	4	
1940년대	1940년대	2	2
1950년대	1950년대	13	18
	1950-1960	5	
1960년대	1960년대	10	14
	1960-1970	4	
1970년대	1970년대	6	7
	1970-1980	1	
1980년대	1980년대	4	4
개화기~해방전	1900-1945	1	10



	1910-1930	5	
	1910-1940	2	
	1920-1940	2	
해방후~현대	1945-현대	2	7
	1950-1970	3	
	1960-1990	2	
현대소설사 전체	1910-1990	1	1
현대	현대	49	49
문학일반	문학일반	27	27
총계		251	

연대별로 본다면, 현대 > 1900년대 > 1910년대 > 1920년대 순으로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 시기별로 묶어보면, 1890년대~1920년대까지의 논의가 총 93편으로 전체의 약 37.1%에 해당하여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독자 논문 편수가 251편이지만, 이 중 독자 이론 관련 논문을 제외하고 볼 때는 총 224편으로, 실제 작품과 함께 논의되는 독자 논문 안에서 상대적인 비율을 보면, 전체의 약 41.5%를 차지하고 있다. 즉 독자 논문의 대부분이 개화기에서 식민지 초기까지에 몰려 있었다.

이에 반해, 1940년대 2편, 1970년대 7편, 1980년대 4편 등 이들 시기는 독자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아직 많이 진행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3) 독자 연구의 연구 대상

다음으로는 독자 연구의 연구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분류로 볼 때, 매체 관련이 총 144편으로 약 57.4%, 단독 작품과 연관한 연구가 약 26.7%, 교육이나 이론 관련 연구가 약 15.5%를 차지했다.

〈표-3〉 독자 연구의 연구 대상 분류표

연구대상 대분류	연구대상 소분류	편수	대분류별 개수
매체	잡지	66	144
	신문	49	
	현대매체(SNS)	20	
	신문/잡지	9	
작품	작품	49	67
	전집류	5	
	독본류	5	
	일반 창작	5	
	비교문학	2	
	북한 문학	1	
교육 / 이론	교육	21	39
	독서 (이론)	9	
	독자 (이론)	9	
합계			251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매체 중에서도 잡지류가 가장 많아서 총 66편으로 약 26.7%, 신문이 약 19.5%, SNS 등 현대매체가 약 8%를 차지했다. 신문 잡지를 모두 포함하여 본다면, 총 124편으로 전체의 약 49.4%를 차지하여 거의 절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독자 연구가 신문, 잡지 등의 매체와 함께 연구되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매체가 아닌 경우에는 작품을 분석하거나, 특정 작품의 독자에 대한 연구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약 19.1%로 전체의 1/5을 차지했다. 일반 작품 외에도, 문학 제도와 정전화와 연관한 전집류, 독본류, 일반 독자들의 창작물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 외에 교육 논문의 경우는 문학 작품을 학습자에게 교육하기 위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경우는 독자 이론이나 독서 이론과 연관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설 텍스트를 이해하게 하기 위한 독서 교육, 텍스트 분석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독자 반응 이론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로젠블렛의 연구 자체가 문학교육론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자 이론이나 독서 이론과 연관한 교육

연구가 많이 눈에 띄었다.

#### 4) 독자 연구의 특정 대상 (아동/청소년/여성)

다음으로는 독자 연구의 대상 중 특정 독자를 상정하는 경우를 따로 분류해보았다. 아래 <표-4>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해서 분류한 것이다.

<표-4> 독자 연구 중 아동/청소년/여성 대상 분포표

연구 대상	편수
여성(여학생)	31
아동	23
청소년	4
아동/청소년	3
아동/여성	1
총계	62

이론 연구를 제외하고 실제 소설과 연관한 독자 연구 논문 편수가 총 224편이었는데, 여성과 연관한 연구가 31편으로 약 13.8%, 아동이 23편으로 약 9.2%, 청소년이 4편으로 약 1.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정 독자에 대한 연구는 총 224편 중 62편으로, 전체의 약 27.7%를 차지했다. 즉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독자 연구의 연구방법 분석

3장에서는 연구방법에 따라 독자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독자 관련 이론은 어떤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독자 연구 자체를 주목적으로 한 논의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자 연구 관련 이론에 대해 간단

하게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 근현대 소설, 서사 관련 독자 논문에 활용된 이론은 매우 다양하다. 범박하게 구분해 보면, 1) 독자 수용 비평(독자 반응 비평), 2) 독자 이론, 3) 미디어 이론, 4) 페미니즘 이론, 5) 문화 관련 이론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독자 이론은 독자 수용 비평이라 할 수 있다. 차봉희<sup>10)</sup>의 수용 미학과 독자 반응 이론 등이 소개되면서 야우스, 이저 등의 수용 미학과 관련하여 독자 수용 이론이 활용된다. 사실 독자 수용 비평, 수용 미학, 독자 반응 비평(이론)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독자 수용 비평이나 수용 미학은 독일의 야우스, 이저의 수용 미학적인 관점에서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독자 반응 비평은 독자 수용 비평에서 영향을 받은 로젠블랫, 홀랜드, 블레이치 등의 미국 이론가들을 칭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 기저가 독자 수용이므로, 한국의 연구에서는 이 둘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독자 수용 이론에서 볼프강 이저는 “문학적인 텍스트는 항상 독자들만이 채울 수 있는 ‘여백’을 내포”<sup>11)</sup>한다고 보았다. 해석 행위는 바로 이러한 텍스트의 여백이자 틈을 메우는 일이며, 텍스트 자체의 완결성이나 독자성을 부정하고,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가운데 이저는 텍스트에서 상정되는 ‘내포된 독자’와, 실제 읽기를 하는 동안 자신의 경험과 접목시켜 해석하는 ‘실제 독자’로 구분하고 있다.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 역시 “작품과 작가만을 고찰하던 기존의 문학연구를 비판하고, 독자의 입장을 위주로 하는 문학연구”<sup>12)</sup>를 주장한다. 특

---

10) 차봉희 편저,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독자 반응 비평』, 고려원, 1993.

11) 레이먼 셸던, 현대 문학 이론 연구회 역, 『현대 문학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8, 166면.

12) 김연순, 「독자 중심의 문예이론으로서 수용미학」, 『독일문학논고』,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회, 1988, 66면.

히 야우스는 “기대지평”이라는 용어를 통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어서 독자들이 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비판 기준”으로 삼는다. 그에 따르면, 문학 작품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거나, 어느 시대 어느 독자에게나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모두 똑같이 해석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sup>13)</sup> 사실 이러한 야우스의 해석은 가다머의 해석학에 빚을 지고 있다. 가다머에 따르면, “과거 문학의 모든 해석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이며, “문학 작품은 완성되고 잘 정리된 의미의 형태로 세상에 쏟아져 나오지 않”고, “의미란 해석자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설명한다.<sup>14)</sup>

이러한 해석학적 이론의 바탕은 향후 독자 수용 이론이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게 만든다. 문학 텍스트가 독자의 특정 심리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정신분석학적 독자반응 비평이며, 텍스트에 대한 젠더적 문제를 독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주목하거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독자 대중을 이끌어가는지 밝혀내고 있다면 여성주의 비평과 결합한 독자반응 비평일 수 있고, 문학 텍스트 내부에서 독자의 내면 의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내고 있다면, 구조주의적 비평과 접목한 독자 반응 비평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독자 수용 이론은 매우 다양한 이론들과 접목될 수 있다.<sup>15)</sup>

이러한 독자 연구는 독서 연구와도 연계되는데, 앙베르토 망구엘의 『

13) 레이먼 셀던, 위의 책, 173-175면 참고.

14) 위의 책, 170, 175면.

15) 로이스 타이슨은 독자 반응 비평이 다양한 범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1)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교동을 분석하는 로젠블랫의 상호교통적 독자 반응 비평, 2) 시시각각 발생하는 독자의 감정과 반응, 경험에 주목하는 피시의 영향(감정)문제론적 독자 반응 비평, 3) 독자들의 반응이 곧 텍스트라는 블라이히(블레이치)의 주관적 독자 반응 이론, 4) 텍스트를 접하면서 느끼는 독자들의 심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홀렌드의 심리적 독자 반응 비평, 5) 개별적인 주관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해석 공동체의 산물임을 밝히는 스탠리 피시의 후기 작업에 해당하는 사회적 독자 반응 이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로이스 타이슨, 윤동구 역,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엘피, 2013, 364, 370-402면 참고)

독서의 역사』<sup>16)</sup>, 로제 샤르티에와 글리엘모 카발로의 『읽는다는 것의 역사』<sup>17)</sup>, 마에다 아이의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sup>18)</sup> 등의 이론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천정환의 『근대의 책 읽기』<sup>19)</sup>에서는 이러한 독서 연구와 사회문화적 문학환경을 접목하며 독자의 탄생, 독자층의 형성과 분화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 연구<sup>20)</sup>는 신문, 잡지, 책 출판 등의 문학 환경, 제도, 문학장 등과 연관하여 전개되었다. 신문 독자와 소설 독자의 접목 역시 이러한 미디어 연구와 함께 접목되어, 매체와 작가, 독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매체의 전략과 독자 전략, 독자의 반응을 살피는 경우가 많았다.<sup>21)</sup>

이 외에도 미디어 연구와 더불어 여성 잡지나 매체를 대상으로 페미니즘 비평을 적용하는 경우나, 문화 비평을 접목하는 경우, 공감, 감정 등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행동과 정치와도 연관되어 정동의 문제를 다루는 정동이론<sup>22)</sup>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한국 근현대 소설, 서사 관련 독자 연구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이론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한 표는 아

---

16) 앙베르트 망구엘, 정명진 역, 『독서의 역사』, 세종서적, 2000

17) 로제 샤르티에, 글리엘모 카발로, 이종삼 역, 『읽는다는 것의 역사』,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18) 마에다 아이, 유은경, 이원희 역,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 이룸, 2003.

19)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천정환·정종현, 『대한민국 독서사』, 서해문집, 2018.

20)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박정규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와 『구텐베르크 은하계: 활자 인간의 형성』(임상원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과 대중매체 이론과 특징을 밝힌 강준만의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개마고원, 2001 등을 들 수 있다.

21) 예를 들어, 전은경의 『근대계몽기 문학과 독자의 발견』(역락, 2009)과 『미디어의 출현과 근대 소설 독자』(소명출판, 2017)를 들 수 있다.

22) 엘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역, 『정동 이론』, 갈무리, 2016.

래 <표-5>와 같다.<sup>23)</sup>

<표-5> 독자 관련 논문 연구방법 분류표

연구방법 분류		개수	
매체	매체(신문, 잡지)	130	147
	현대미디어	17	
독서 이론 / 교육	독서 (이론)	24	56
	교육	20	
	출판, 유통, 소비	12	
독자 수용 비평	독자 수용 이론	16	39
	텍스트 분석	10	
	독자 반응 이론	9	
	적극(능동) 독자	4	
페미니즘 / 문화	페미니즘	4	9
	문화	3	
	문학치료	2	
총계		251	

연구방법의 대분류상으로 보면, 매체 연구가 147편으로 전체 연구의 절반을 넘는 약 58.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독서 문화 또는 독서 이론이나 교육 계열 논문이 56개로 약 22.3%를, 독자 수용 비평 관련 논문이 39개로 15.5%를, 페미니즘과 문화 관련 논문이 7편으로 약 2.8%를 차지했다.

이러한 매체 연구 중에 일반 신문이나 잡지 연구가 130편으로 약

23) 연구방법에 대한 분류는 매체, 독서 이론/교육, 독자 수용 비평(반응 비평 포함), 페미니즘/문화로 나누었다. 그 대분류에 대한 소분류로 나누었으나, 사실 완벽하게 구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독서 이론 분야로 분류된 출판, 유통, 소비와 연관한 문학장이나 문학 환경에 관련한 논의는 미디어와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독자 수용 비평 중 독자 수용 이론 안에 “내포 독자”, “실제 독자” 등이 포괄되는데, “텍스트 분석” 역시 가능하다. 적극(능동) 독자의 영역 역시 독자 수용(반응) 이론 안에 모두 포괄된다. 그러나 독자 수용(반응) 비평이 워낙 광범위하기에 특징을 나누어 세분화시켜 보고자 했다. 또 연구자에 따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을 활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큰 분류를 위해 범박하게 나누었음을 밝혀둔다.

51.8%를 차지하여 소설 및 서사 관련 독자 연구의 절반은 대체로 신문 잡지 연구와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독서 이론이나 교육 논문, SNS 등 현대 미디어 관련, 출판과 유통 등 문학 제도 및 문학장과 연관한 논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실 한국 근현대 소설, 서사 관련 독자 논문의 경우, 주 연구방법 외에도 여러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주 연구방법을 매체를 활용하면서도 독자 수용 이론이나 문화론적 관점을 적용하기도 했다.

〈표-6〉 독자 관련 논문 연구방법 세부사항 분류표

연구방법 세부사항	주 연구방법	병행 연구방법	전체
적극(능동) 독자	4	49	53(약 21.1%)
독자 수용 이론	16	26	42(약 16.7%)
출판, 유통, 소비	12	20	32(약 12.7%)
텍스트 분석(서사 이론)	10	7	17(약 6.8%)
독자 반응 비평	9	5	14(약 5.6%)
페미니즘	4	9	13(약 5.2%)
총계		171	

이렇게 병행 연구방법까지 포함하여 보면, 매체 연구를 제외하고 독자 관련 이론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독자 수용(반응) 비평 가운데에도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은 적극적인(능동적인) 독자에 대한 연구였다. 전체 53개로, 총 251편 중 약 21.1%에 해당하여 전체 독자 관련 연구의 1/5을 차지했다. 다음은 독자 수용 이론으로 42개로 약 16.7%, 독서 환경과 연관된 출판, 유통, 소비 관련 문학 환경 제도 부분이 32개로, 약 12.7%를 차지했다. 그 외 텍스트 분석, 독자 반응 비평, 페미니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독자 관련 연구들이 독자가 주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연구를 위해 수단이나 부차적인 연구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 아



래 표는 독자 연구를 목적으로 한 연구 분포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7〉 독자 관련 논문 중 독자를 주 연구로 한 논문 분포표

연도	개수	연도	개수	연도	개수
2000	1	2010	10	2020	7
2001	2	2011	5	2021	6
2002	1	2012	9	2022	6
2003	2	2013	7	2023	6
2004	3	2014	9		
2005	3	2015	10		
2006	4	2016	11		
2007	4	2017	3		
2008	2	2018	12		
2009	7	2019	10		
합계	29편		86편		25편

〈표-7〉은 각 연도별로 독자를 주 연구로 한 논문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고전 문학이나 현대문학의 다른 영역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논문이 있었겠지만, 근현대 소설, 서사 관련한 독자 연구는 위의 분포표 정도로 진행되었다. 독자 자체를 주 목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총 140편으로, 전체의 약 55.8%를 차지했다. 이와 반대로 독자를 부수적으로 다룬 연구가 총 111편으로 약 44.2%에 해당되었다. 독자를 주 목적으로 삼아 연구한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9년 이후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2009년까지는 총 29편이었던 데 반해, 2010~2019년까지는 총 86편으로 총 3배가 늘어 2010~2019년까지 독자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8〉 주 독자 논문의 연구방법 분류표

연구방법		개수	
매체	매체	67	74
	현대미디어	7	
독서 이론	독서 이론	15	34
	교육	13	
	출판/유통/소비	6	
독자 수용 비평	독자 수용 이론	11	28
	독자 반응 이론	9	
	텍스트 분석	4	
	적극적(능동적) 독자	4	
페미니즘 / 문학치료	페미니즘	3	3
	문학 치료	1	1
총계		140	

〈표-8〉은 독자를 주 목적으로 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을 조사하여 분류한 표이다. 가장 많은 연구방법은 매체 관련 방법으로 총 74개로 전체 편수 251편 중 약 29.5%를 차지했다. 다음은 독서 관련 이론으로 약 13.5%를, 독자 수용 비평이 약 1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매체 연구가 가장 많았고, 독자 수용 비평이 많이 활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표-9〉 주 독자 논문의 연구방법(병행 연구방법 포함) 분류표

연구방법	세부사항	주 연구방법	병행 연구방법	개수	
독자 수용 비평	적극(능동) 독자	4	42	46	91
	독자 수용 이론	11	12	23	
	독자 반응 이론	9	5	14	
	텍스트 분석	4	4	8	
독서 이론	독서 이론	14	2	16	26
	출판/유통/소비	6	4	10	
문화	페미니즘	3	4	7	9
	문화/독자사회학		2	2	
총계		126			

〈표-9〉는 주 독자 논문 140편 중 병행 연구방법까지 포함하여 분류한 표이다. 주 연구방법에 병행 연구방법까지 포괄해서 보면, 주 독자 논문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이 명확하게 보인다. 병행 연구방법까지 포함해서 보게 되면, 독자 수용 비평이 총 91편으로 전체 251편 중 약 36.3%이며, 전체 논문의 1/3에 해당한다. 주 독자 논문 140편 중에서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독서 이론 관련 논문은 총 26편으로 교육 부분 11편을 포함해서 보더라도, 총 37편으로 약 14.7%를 차지했으며, 주 독자 논문 안에서는 약 26.4%를 차지했다. 페미니즘이나 문화 관련 논의의 경우 9편으로 약 3.6%를 차지했다.

#### 4. 독자 연구사 분석과 검토

앞 장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독자 관련 연구의 양적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방법까지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각 연구방법별로 대표적인 연구의 실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sup>24)</sup> 활용된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1) 매체 연구, 2) 독자 수용/반응 비평 연구, 3) 독서 연구, 4) 페미니즘 비평 연구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 1) 매체 연구

매체의 측면에서는 신문 매체 연구, 잡지 매체 연구, 현대 미디어 연구 등으로 나누어보았다. 첫째, 신문 매체 연구의 경우, 김영민의 신문 연

24) 대표적인 연구라고 했지만, 251편 모두 '독자'와 관련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 논의들이었다. 다만, 지면의 관계로 주 독자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여러 편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간 경우, 또 새로운 논의를 진행한 경우 예시로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구25)를 들 수 있다. 「근대계몽기 신문의 문체와 한글 소설의 정착 과정」에서 『만세보』에서 한글체 소설의 정착 과정에 천착하여 두 가지 문체를 활용하여 신문이 두 문자층의 독자를 모두 흡수하려는 편집 전략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근대 신문 매체의 독자 창작 참여제도를 분석하여 매체 전략을 살펴보고, 이러한 매체가 추진한 독자 투고 현상 모집의 대중적 확산과 서사 양식을 다양화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김석봉<sup>26)</sup>은 개화기 신문 매체를 중심으로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신문 편집과 발행 주체의 의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대중적, 통속적 서사에 반발하는 근대 문학의 독자 계층 형성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손동호<sup>27)</sup>는 근대계몽기의 『만세보』와,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와 『매일신보』의 신춘문예와 신년 현상문예를 다루면서 매체의 전략적 방침과 제도 보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전은경<sup>28)</sup>은 1900년대와 1910년대 신문 매체를 집중적으로 다

- 25) 김영민, 「근대계몽기 신문의 문체와 한글 소설의 정착 과정」, 『현대문학의 연구』 2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47-88; 「근대 매체의 독자(讀者) 창작 참여 제도 연구(1)」, 현대문학의 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97-128. 그 외에도 독자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신문 매체 전반에 걸쳐 매체적 환경과 근대소설의 정착 과정을 연구한 「근대적 문학제도의 탄생과 근대문학 지형도의 변화(1)」, 『사이間SAI』 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9-48; 「1910년대 신문의 역할과 근대소설의 정착 과정-『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5,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261-300; 「근대 계몽기의 매체와 담론 : 구한말 일본인 발행 신문과 한국의 근대소설 -『한성신보(漢城新報)』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7-44.
- 26) 김석봉, 「개화기 서사 문학의 독자 전유 양상 연구」, 한국문화(4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117-134; 「『매일신보』의 「신년 현상 문예 모집」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48), 한국현대문학회, 2016, 265-289.
- 27) 손동호, 「식민지 시기 『매일신보』의 신년현상문예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20(2)), 한국근대문학회, 2019, 235-270;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의 신춘문예 연구」, 우리문학연구(67), 우리문학회, 2020, 241-273; 「근대 미디어의 담론 전개 전략 연구 - 『만세보』의 교육 담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74),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121-153.
- 28) 전은경, 「1910년대 『매일신보』 소설 독자층의 형성과정 연구 - 〈독자투고란〉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2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107-132; 「근대 초기 독자층의 형성과 매체의 역할 -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40-74; 「『대한매일신보』의 〈편편기담〉과 『쓰는 독자』의 출현」, 한국현대문학연구(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71-102; 「근대 계몽기의 신문 매체와 “독자” 개념의 근대성 - 번역어 “독자”의 성립 과정과 의

루면서 매체 전략과 독자들의 반응, 또 적극적인 독자들의 쓰기 행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잡지 연구의 경우로 김성환<sup>29)</sup>은 1970년대~1980년대에 걸쳐 잡지를 중심으로 대중 서사와 독자들의 공모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독자들의 논픽션, 체험 수기를 기반으로 저널리즘 글쓰기와 독자 공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김양선<sup>30)</sup>은 1950년대~1960년대의 전후의 여성문학 장의 형성에 관하여 천착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잡지 매체의 전략으로 문학소녀들이 현상문예에 투고하고, 적극적으로 창작의 욕망을 실현하는 장이 되었으나, 반대로 문학란을 통해 당대 규범화된 성의식을 습득하게 만들었다고 짚어내고 있다. 장수경<sup>31)</sup>은 1950년대~1970년대

사소통의 장, 현대문학이론연구(4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175-200; 『만세보』의 〈독자투고란〉과 근대 대중문학의 형성-이인직의 『혈의 누』와 『귀의 성』을 중심으로, 어문학(111), 한국어문학회, 2011, 359-388; 「근대계몽기 독자의 서사에 대한 욕망과 재생산적 글쓰기: 「편편기담」과 구조 학습의 효과」, 한국현대문학연구(38), 한국현대문학학회, 2012, 35-82; 『대한민보(大韓民報)』의 독자란 (풍림(諷林))과 근대계몽기 지식인 독자의 서사적 글쓰기, 대동문화연구(8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237-279; 『대한민보』의 소설 정책과 근대 독서 그룹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44), 한국현대문학학회, 2014, 47-93; 「근대계몽기 『경향신문』의 편집 전략과 독자 수용 정책」, 어문학(127), 한국어문학회, 2015, 417-453; 「근대 매체의 이중적 사유와 새로운 지식인 독자층의 출현-『협성회회보』와 『매일신문』을 중심으로」, 어문학(130), 한국어문학회, 2015, 187-227; 『독립신문』의 문학적 장치와 공론장에 등장한 독자-문학과 정치의 상관관계, 대동문화연구(9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6, 385-421 등을 들 수 있다.

29) 김성환, 「1970년대 논픽션과 소설의 관계 양상 연구 - 『신동아』 논픽션 공모를 중심으로」, 상허학보(32), 상허학회, 2011, 13-61; 『어둠의 자식들』과 1970년대 하층민 글쓰기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34), 한국현대문학학회, 2011, 359-397; 「1970년대 대중 서사의 전략적 변화」, 현대문학의 연구(51), 한국문학연구학회, 153-192; 「하층민 서사와 주변부 양식의 가능성 -1980년대 논픽션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5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403-442.

30) 김양선,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과 『여원』」, 여성문학연구(1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62-91; 「1960년대 여성의 문학,교양 형성의 세대적 특성-잡지 『여학생』의 문학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6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27-49.

31) 장수경, 「『학원』지 독자투고에 나타난 산문의 경향과 의미 고찰」, 비평문학(34), 한국비평문학학회, 2009, 255-280; 「『학원』의 “학원문단”과 “학원문학상”의 의미-독자 투고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38),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263-285; 「1950년대 소년잡지에 나타난 문학 창

의 소년과 학생 잡지를 중심으로 문학 창작 교육과 독자 투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잡지들이 독자투고와 현상문예를 통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 창작 교육이 전개되었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독자투고란 안에서 독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 미디어와 관련한 연구로는 새로운 문학장에 대한 연구<sup>32)</sup>,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독자 정체성과 관련한 연구<sup>33)</sup>, 각 플랫폼에서의 장르와 독자 관계 연구<sup>34)</sup>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디지털 다매체 환경에서 문학이 어떻게 소비되고 향유되는지 새로운 문학장의 형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독자들이 이 디지털 매체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직접 교류하며 글쓰기를 진행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독자의 형태 역시 짚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

작교육과 의의 -『새벗』과 『소년세계』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40), 한민족문화학회, 2012, 311-340; 「1960년대 학생독자의 소통욕망과 잡지 -『학원』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24),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 5-39.

32) 최혜실, 「디지털 서사(e-narrative)의 현황과 전망」, 한국현대문학연구(8), 한국현대문학회, 2000, 33-56; 신종락, 「전자책과 인터넷 글쓰기로 인한 문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영향」, 코기토(71),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435-466; 장일구, 「문학+사회@디지털 문화장 -디지털시대 문학사회학 테제의 구성 자질 시론」, 현대문학이론연구(6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59-81; 이지원, 「디지털 다매체 환경과 문학의 새로운 유통 양상」, 인문콘텐츠(46), 인문콘텐츠학회, 2017, 153-173.

33) 이남호, 「우리 시대의 독자는 누구인가 -전자문화시대의 독자의 성격」, 독서연구(16), 한국독서학회, 2006, 9-20; 최병우, 「전자매체시대의 독자」, 독서연구(16), 한국독서학회, 2006, 55-75; 안미영, 「뉴미디어시대 '문학 독자'의 위상과 소설의 방향성」, 스토리&이미지텔링(4), 건국대학교 스토리엔이미지텔링연구소, 2012, 68-98; 주민재, 「인터넷 쓰기의 스토리텔링 구조 분석과 새로운 독자 개념의 탐색」, 작문연구(27), 한국작문학회, 2015, 229-258.

34) 주민재, 「블로그 쓰기와 다층적 독자 인식」, 작문연구(17), 한국작문학회, 2013, 299-336; 김경애, 「웹소설의 전용과 재매개 양상 연구 -『구르미 그린 달빛』의 드라마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7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417-439; 장미영, 이호준, 「문학작품 독자의 주관적 재미 요소 연구」, 인문콘텐츠(18), 인문콘텐츠학회, 2010, 73-100; 안상원, 「모험서사와 여성혐오의 결합과 독서 욕망 : 웹소설 로맨스판타지 장르에 나타난 성장물의 양가성」, 이화어문논집(53), 이화어문학회, 2021, 175-196; 박주형, 「능동적 협력자로서의 문학 독자 역할에 대한 고찰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의 문학 소통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93), 우리말글학회, 2022, 293-324.

계선 없는 플랫폼의 특성상 독자의 과도한 개입으로 문학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거나 비슷한 유형이 모방되며 양산되는 현상 역시 역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 2) 독자 수용 비평 연구

두 번째로 독자 수용 비평 연구는 독자 수용/반응 이론을 바탕으로 한 독자 연구, 독자 수용에서 더 나아가 텍스트 분석이나 서사 분석과 연관한 연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독자에 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독자 수용/반응 이론을 바탕으로 한 독자 연구 중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손정수<sup>35)</sup>는 대학 문학 수업에서 로젠블렛의 상호교통이론을 활용하여 비심미적 독서 속에서 새로운 태도와 감수성을 드러내며 심미적 독서와 비심미적 독서의 상호교통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토론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음을 교육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오현숙<sup>36)</sup>은 1920년대 『어린이』 잡지 속에 내포 독자와 실제 독자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며, 이저의 내포독자의 특성과 야우스의 기대지평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1920년대 아동문학 독자의 기대지평과 서사의 반복되는 패턴을 유형화하였다. 임세진<sup>37)</sup>은 수용자로서의 비평가의 역할에 주목하며, 작품과 독자의 상호과정 속에 작품의 틈을 메우면서 의미를 획득한다고 설명한다. 이 외에도 독자 수용/반응 이론을

35) 손정수, 「한국 소설의 수용 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비심미적 독서 경향과 그 문학 교육적 의미 -수업 과정에서 젠더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49), 반교어문학회, 2018, 135-164.

36) 오현숙, 「1920년대 아동문학의 독자와 텍스트 미학 연구 -『어린이』 잡지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48), 한민족문화학회, 2014, 7-33.

37) 임세진,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본 김환태 비평 연구」, *인문학논총*(30),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33-53.

활용하여 내포 독자와 실제 독자의 거리, 독자들의 기대지평, 로젠블렛의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교통이론 등을 활용하여 작품과 작품을 읽는 독자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독자 수용 이론 중 내포 독자와 실제 독자라는 개념을 강화하여 텍스트 분석이나 서사 이론을 접목한 논의들도 눈에 띄었다. 정진석<sup>38)</sup>은 독자 수용 이론의 내포 독자의 개념을 바탕으로 서사 이론을 접목하여 텍스트를 분석하고 특히 텍스트를 해석하는 독자의 중층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임선숙<sup>39)</sup>은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실제 독자가 내포 독자를 통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문제에 집중하여, 원 텍스트와 패러디텍스트의 의미화소를 분석하고 독자에 의해 재창조하는 독서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독자 수용 이론에서 더 나아가 독자의 능동성, 적극성을 강조하고 주목하는 연구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노지승<sup>40)</sup>은 여성 잡지를 대상으로 서사 읽기를 즐기는 여성 독자들에 주목하여, 실화, 편지, 일기 등을 통한 글쓰기와 여성 독자의 취향, 소통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박주형·진가연<sup>41)</sup>은 독자 수용 이론에서 이저의 내포 독자의 개념을 토대로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며, 특히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창작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문학 독자의 역할에 주목한다. 소영현<sup>42)</sup>은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사건에 대해 말하기, 쓰기, 연대의 방식으로 운동

---

38) 정진석, 「소설 해석에서 독자 역할의 중층 구도와 소통 방식 연구」, 『문학교육학』 4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253-279.

39) 임선숙, 「패러디 소설의 수용미학적 고찰 - 최인훈의 〈옹고집전〉 〈놀부전〉을 중심으로」, 국문학논집(19),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3, 187-212.

40) 노지승, 「여성지 독자와 서사 읽기의 즐거움-『여성』(1936-1940)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101-135.

41) 박주형, 진가연, 「능동적 협력자로서의 문학 독자 역할에 대한 고찰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의 문학 소통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93, 우리말글학회, 2022, 293-324.

42) 소영현, 「포스트 미투 운동과 ‘시민-독자’의 자리 : 이후의 삶, 너머의 문학」, 『여성문학연구』 47,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19-150.



의 지속성을 설명한다. 전은경<sup>43)</sup>은 근대계몽기 신문의 독자문예란인 「편편기담」에서 독자들의 쓰기를 분석하고, 서사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재 생산되고, 모방되어 학습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3) 독서 연구와 페미니즘 연구

다음으로 독서 관련 연구에 관해서는 근현대 한국의 독서의 역사를 살펴 보며 독자층의 분화를 설명하는 연구<sup>44)</sup>, 출판이나 유통, 소비되는 문학의 장과 문학 제도에 관한 연구<sup>45)</sup>, 문학 교육과 연관한 연구<sup>46)</sup>를 들

- 
- 43) 전은경, 「『대한매일신보』의 〈편편기담〉과 ‘쓰는 독자’의 출현」,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71-102; 「근대계몽기 독자의 서사에 대한 욕망과 재생산적 글쓰기 : 「편편기담」과 구조 학습의 효과」, 『한국현대문학연구』 38, 한국현대문학회, 2012, 35-82.
- 44) 이기훈, 「독서의 근대, 근대의 독자-1920년대 책읽기」, 역사문제연구(7), 역사문제연구소, 2001, 11-71; 「1920년대 『어린이』지 독자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역사와 현실(102), 한국역사연구회, 2016, 287-322; 천정환, 「1920~30년대 소설독자의 형성과 분화과정」, 역사문제연구(7), 역사문제연구소, 2001, 73-100; 「주체로서의 근대적 대중독자의 형성과 전개」, 독서연구(13), 한국독서학회, 2005, 209-235; 「한국문학전집과 정전화: 한국문학전집사(초)」, 현대소설연구(3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85-124; 「한국 독서사 서술 방법론(1)-독서사의 주체와 베스트셀러 문화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43), 반교어문학회, 2016, 13-39.
- 45) 최경희, 박혜숙, 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3) : 근대편」, 여성문학연구(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233-274; 구자황,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 글쓰기 장(場)의 재인식 : 근대 독본의 성격과 위상(3) -1930년대 독본(讀本)의 교섭과 전변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29), 반교어문학회, 2010, 5-32; 이시은, 「제도로서의 “독자” : 1950년대 “전문 독자”로서의 비평가 집단의 형성」, 현대문학의 연구(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149-174; 차혜영, 「1930년대-1940년대 ‘식민지 이중언어문학 장’ 국가와 시장을 둘러싼 언어선택과 문학제도의 재편에 관한 고찰」, 상허학보(39), 상허학회, 2013, 121-176; 임상민, 이경구, 「제국 일본의 출판유통과 식민도시 부산의 독자층 연구 -일본인 경영 서점과 염상섭 『만세전』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49), 한국일본근대학회, 2015, 201-220; 최혜령, 「『무정(無情)』의 계보를 찾아서 -파라텍스트(Paratext)도 돌아보는 이광수 『무정』의 위치」, 춘원연구학보(22), 춘원연구학회, 2021, 157-185.
- 46) 최인자, 「인성교육을 위한 ‘자기이해와 수용’의 문학 독서 : 박경리 소설 『토지』를 중심으로」, 독서연구(41), 한국독서학회, 2016, 93-118; 류동규, 「타자 이해를 위한 ‘공감의 플롯’ 읽기」, 국어교육연구(71), 국어교육학회, 2019, 237-272; 최현식, 「문학교육·정전·잠재적 독자에 대한 단상」, 서정시학 통권 97호, 계간 서정시학, 2023, 37-51; 진술, 「서사 감상 과정에서 독자

수 있다. 독서 관련 연구는 음독에서 묵독으로 근대적 독서로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 독자층 분화의 과정을 연구하고, 독서사의 관점에서 시대별 독서의 유형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대별 문학 유통, 출판, 소비의 변화와 문학 제도 및 문학장의 형성에 따라 독자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페미니즘 연구<sup>47)</sup>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김은하<sup>48)</sup>는 여성 운동과 문학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특히 1980년대 박완서 소설을 통해 공감하는 여성 독자들이 공론장을 형성하여 토론의 기회를 가지고 페미니즘 문화를 실천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허윤<sup>49)</sup>은 『82년생 김지영』 텍스트를 읽으며 여성 독자들이 연대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젠더 의식과 더불어 여성의 글쓰기, 정치적 연대까지 나아가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의 반성 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44), 한국아동문학학회, 2023, 173-204.

47) 장미영, 「여성 자기서사의 서사적 특성연구-『여원』 수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1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61-194; 이선옥, 「『여원』의 중심 담론과 여성들의 글쓰기 - 여류현상 문예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1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337-369; 김양선, 「1960년대 여성의 문학,교양 형성의 세대적 특성 -잡지 〈여학생〉의 문학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27-49;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51), 상허학회, 2017, 15-49;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팸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 허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19(2)), 한국근대문학학회, 2018, 123-151; 임진아, 「보편을 분유(分有) 하는 문학소녀들의 책 읽기 -전혜린의 독서 노트와 베스트셀러 『데미안』의 탄생」, 여성문학연구(51),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251-283; 박재연, 「폭력을 재현하는 일상론과 '공감'의 윤리학」, 여성문학연구(57),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255-280.

48)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51), 상허학회, 2017, 15-49;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팸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

49) 허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19(2)), 한국근대문학학회, 2018, 123-151.

## 5. 독자 연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한 소고

앞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근현대 소설, 서사 관련 독자 논의에 대해 범박하게 살펴보았다. 이렇게 간략히 살펴본 독자 관련 연구의 성과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연구 대상에 있어서 개화기인 189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독자와 독서행위에 대해 정리해오고 있었다. 특히 매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신문과 잡지의 매체 전략을 살펴면서 독자의 측면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독자문예란, 독자투고란에 대한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문학 제도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신춘문예 등에 대한 연구 역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독자가 직접 글쓰기에 참여하여 매체 속에 드러난 문자화된 독자를 정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독자 연구의 방법일 것이다.

둘째, 독자 수용 이론이 유입된 이래, 이저의 텍스트의 여백과 틈을 메우는 독자의 참여, 내포 독자와 실제 독자, 야우스의 기대지평과 해석학적 연계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이론들과 접목되면서 독자 연구의 방법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텍스트 분석과 서사 이론을 접목하고, 미디어 이론과 독자 수용 이론이 접합되어 연구되기도 했다. 또한 독서층 및 독서사회학적 이론과 더불어, 문학 제도와 문학 출판 및 유통·소비 이론, 문화이론, 감정·공감 등과 연관된 심리 비평, 페미니즘 등 다양하게 접목되어 독자 논의를 다양화하고 있다.

셋째, 독자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상정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상정하여 이러한 적극적인 독자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는 논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그 수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개입하고 변화시키는 독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자의 역할이 소설과 소설 문학의 장을 어떻게 관여하고 변화시키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넷째, 학회 등을 통해서 독자 관련 기획 주제를 통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학회에서 매체, 독자, 제도, 독서 등의 키워드로 독자 연구를 기획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의 독자 관련 논의들이 이어져 올 수 있었다. 또한 기획 주제별로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으로 독자 논의를 생산해낼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24년간의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성과이면서 동시에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계를 짚으면서, 앞으로 독자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의 경우,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매체 연구에 대한 부수적인 연구로 독자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독자 연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매체 연구 중 독자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즉 신문이나 잡지의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려면, 독자는 그러한 여러 구성 요소들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한국 근현대 소설을 분석하기 위해 매체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매체 안에서 독자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매체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특정 연대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신문, 잡지 중에서도 특정 매체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 연구되지 못한 연대, 당대 주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신문, 잡지를 분석하고, 독자와 연관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방법으로서의 문학사의 기술로 본다면, 새로운 시각과 잣대로 이전까지 발견되지 못했던 소설과, 그 소설과 함께한 독자를 재구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독자 관련 논문에 활용된 독자 이론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반면, 그만큼 개념화되지 못했다. 독자의 경우에도, 이지의 내포 독자, 실제 독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서사 구조 이론의 용어

가 접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독자 개념에 대해서도 문자화된 독자, 상상된 독자, 쓰는 독자, 행동하는 독자, 참여형 독자, 능동 독자 등 비슷한 특징을 지니면서도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개념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스스로 명명하여 붙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실 독자 연구에서는 독자의 특징을 스스로 명명하여 그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시대별 독자 연구의 기초적인 작업이 끝났다면, 이러한 개념을 묶어 통일시키고, 기준을 세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한국 근현대 소설의 독자 개념이 분류되고 정리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독자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독자 수용/반응 이론, 독서 이론 등에 대해 스스로 명백히 규정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론을 내면화하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독자 수용/반응 이론의 경향과 이와 관련하여 적용된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연구를 통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방법으로서의 문학사의 입장에서 독자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부족하다. 독자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잘 이루어져 왔다. 매체별, 연대별, 이론별, 혹은 독자의 성향과 특징별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근현대 소설문학사를 보다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로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다양한 독자 소설문학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연대가 필수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회의 기획이 아니면, 독자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독자 연구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문제는 이렇게 데이터 작업과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고 확언할 수도 없다. 신문 매체를 분석하고 전체 글을 살펴본다고 해도, 실제로 발견할 수 있는 독자의 글은 극소수일 경우가 많다. 학회의 기획 주제로 독자로 쓰는 독자 문학사가 꾸준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비슷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기획 주제의 연구자들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독자 문학사를 기록한다면, 다양한 형태와 기준, 방법으로 쓴 새로운 독자 문학사가 등장할 것이라 믿는다.

## 6. 새롭게 쓰는 독자 문학사: 능동적 주체로서의 소설문학 독자

지금까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한국 근현대 소설, 서사 관련 독자 연구를 분석해보았다. 이 기간 동안 발표된 독자 연구를 데이터로 정리하고 연도별 독자 연구의 개수와 독자 관련 연구 대상 시기, 독자 연구의 연구 대상 분석, 특정 독자 대상 분류 등을 통해 양적 실태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실제로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을 독자 수용/반응 비평, 독서 이론, 미디어 이론, 페미니즘 이론, 문화 관련 이론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방법론별 논의의 내용을 검토하고 독자 연구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다.

앞서 서론에서 방법으로서의 문학사로서 독자 중심으로 새롭게 읽는 소설 문학사를 이야기해 보았다. 매체 속에서든, 출판과 유통되는 문학의 장 안에서든, 다양한 삶과 정치적 환경 속에서든, 읽을거리와 함께한 독자가 존재한다. 독자는 때로는 작가의 권위에 눌러 계몽이나 가르침의 대상으로 취급되기도 했고, 작품의 완성도에 개입하여 대중적, 통속적이라는 이름으로 가치를 무시당하기도 했으며, 작가를 압박하여 작가 정신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 계도의 대상으로 우매하게 취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독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가에게 요구하여 텍스트에 개입하기도 하고, 작가를 지지하거나 작가와 반목하며 작가를 압박하고, 소비자로서 원하는 성향의 작품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게 만들기도 했고, 텍스트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따라 쓰기, 다시 쓰기, 비틀어 쓰기, 패러디하기 등의 직접 쓰기로 나아가기도 했다. 이제 새로운 문

학의 플랫폼은 독자와 저자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독자=저자인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동하는 독자들, 스스로의 욕망을 글로 표현하는 독자들에게 대한 소설문학사가 쓰여야 할 것이다.

볼프강 이저는 텍스트의 불완전성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텍스트의 여백과 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독자이며, 이로부터 독자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완벽한 텍스트도, 완벽한 해석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텍스트는 개개의 독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재해석될 것이다. 독자 연구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독자를 바라보는 시선, 기준, 역할에 대한 논의 역시 연구자 개개인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재해석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독자 문학사 역시 새롭게 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자 연구는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소설문학사를 재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의 주제에 국한되기보다는 다양한 양태의 독자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가운데 하나로서 능동적 주체로서 소설문학 독자 연구가 통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독자가 단순히 텍스트 읽기의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문학의 생산자로서의 역할 역시 담당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독자 연구는 근현대 소설의 새로운 문학사를 서술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논의는 한국 근현대 소설, 서사 관련 독자 연구에 한정되었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차적 논의에서 더 나아가 한국 문학사 전반에 대한 독자 연구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각 장르별 문학 독자들을 정리하고 일차 데이터를 조사하여 작성하여 분야별 독자들의 경향 역시 통합하여 연구한다면, 현재 한국문학사의 독자 연구의 진행도와 발전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문학사에서 독자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 가야 할지 그 방향성 역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준만,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개마고원, 2001.
- 김영민, 「근대적 문학제도의 탄생과 근대문학 지형도의 변화(1)」, 『사이間SAI』 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9-48면.
- \_\_\_\_\_, 「1910년대 신문의 역할과 근대소설의 정착 과정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5,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261-300면.
- \_\_\_\_\_, 「근대 계몽기의 매체와 담론 ; 구한말 일본인 발행 신문과 한국의 근대소설 -『한성신보(漢城新報)』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7-44면.
- 김윤식 ·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3.
- 선주원 · 박기범, 『현대소설 교육론』, 역락, 2010.
- 임성운, 『문학사의 이론』, 소명출판, 2012.
- 전은경, 『근대계몽기 문학과 독자의 발견』, 역락, 2009.
- \_\_\_\_\_, 『미디어의 출현과 근대소설 독자』, 소명출판, 2017.
- 차봉희 편저,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 \_\_\_\_\_, 『독자 반응 비평』, 고려원, 1993.
-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 천정환 · 정종현, 『대한민국 독서사』, 서해문집, 2018.
- 마살 맥루헌, 박정규 역,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 \_\_\_\_\_, 임상원 역, 『구텐베르크 은하계: 활자 인간의 형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마에다 아이, 유은경, 이원희 역,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 이룸, 2003
-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역, 『정동 이론』, 갈무리, 2016.
- 레이먼 셸던, 현대 문학 이론 연구회 역, 『현대 문학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8
- 로이스 타이슨, 윤동구 역,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엘피, 2013.
- 로제 샤프티에와 굴리엘모 카발로, 이종삼 역, 『읽는다는 것의 역사』,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 루이스 엠 로젠블랫, 김혜리, 엄혜영 역, 『독자, 텍스트, 시-문학 작품의 상호 교통 이론』, 한국문화사, 2008.
- 앙베르토 망구엘, 정명진 역, 『독서의 역사』, 세종서적, 2000.



엘리자베트 프로인드, 신명아 역, 『독자로 돌아가기』, 인간사랑, 2005

〈2000~2023년 한국 근현대 소설, 서사 관련 독자 연구 : 총 251편〉

연도	저자	논문제목	발표지, 학회, 쪽수	대상시기
2023	김지연	어린이와 청소년의 1920년대 '독자문단(讀者文壇)' 연구 -동요(童謠)를 중심으로-	방정환연구(9), 사단법인 방정환 연구소, 23-53	1920년대
2023	박지혜	오정희 <바람의 날>을 통해 보는 부부갈등과 '상치받은 내면아이'의 투사 문제 -문학치료학과 대 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67), 한국문학치료 학회, 303-340	현대
2023	손동호	신문관 발행 잡지의 독자 참여 제도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92, 한양대 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39-67	1900-1910년대
2023	신정은	『토지』의 대중 인식 변화 연구 - 1969년-1999년 일간지 기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79), 한국문학 연구학회, 7-37	1960-1990년대
2023	진솔	서사 감상 과정에서 독자의 반성 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44), 한국아동 문학학회, 173-204	현대
2023	최현식	문학교육·정전·잡제작 독자에 대한 단상	서정시학 통권 97호, 계간 서정시학, 37-51	현대
2023	한명숙	포스트휴먼 독자의 매체문학과 아동문학	한국아동문학연구(44), 한국아동 문학학회, 205-241	현대
2022	권혁준	'동심을 지닌 성인'은 아동문학의 독자인가	아동청소년문학연구(31), 한국아동 청소년문학학회, 293-317	현대
2022	김유진	신지식 동화의 독자 인식 - 이중 독자와 어린이 독자의 구분에 따른 창작 방향	아동청소년문학연구(31), 한국아동 청소년문학학회, 171-201	현대(1980-90년대)
2022	김지현	슬픔의 윤리와 소설교육 - 김예란의 <입동>과 최은영의 <미카엘라>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76), 한국문학교육학회, 113-143	현대
2022	박재연	폭력을 재현하는 일상툰과 '공감'의 윤리학	여성문학연구(57), 한국여성문학 학회, 255-280	현대
2022	박주형	능동적 협력자로서의 문학 독자 역할에 대한 고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의 문학 소통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93), 우리말글학회, 293-324	현대
2022	천미림	김영하 소설의 '살인' 개념에 대한 독자반응 연구: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와 <살인자의 기억법> 비교	인문과학연구논총(7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3-130	현대
2021	강도희	아동문학 장과 책 읽는 여성들 - 1990년대 출판 시장·국가정책·독서운동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29), 한국아동 청소년문학학회, 425-255	현대
2021	김연숙	전후 대중 담론에 나타난 관계지향의 욕망과 친밀성의 계구성 -1950년대 대중잡지의 '독자 사고란'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94), 국어국문학회, 193-224	1950년대
2021	백중륜/입동현	퀴어 문학/비평의 독자는 누구인가 : 『대도시의 사랑법』 수용자의 의미실천과 문화정치	여성문학연구(54), 한국여성문학 학회, 427-490	현대
2021	서승희	'가정의 빛'이라는 난제(難題), 석민지 농촌 여성 독자를 위한 박태원의 소설 쓰기 - 「만인의 행복」과 「집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82), 한국현대소설 학회	1940년대
2021	손동호	근대 미디어의 담론 전개 전략 연구 - 『만세보』의 교육 담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74), 한국문학 연구학회, 121-153	1900년대
2021	안상원	모험서사와 여성혐오의 결합과 독서 욕망: 웹소	이화어문논집(53), 이화어문학	현대

		설 로맨스판타지 장르에 나타난 성장물의 양가성	회, 175-196	
2021	이지영	독자가 인식한 문학 감동의 의미	문학교육학(67), 한국문학교육학회, 115-144	현대
2021	지서영	서사 텍스트 의미의 가추적 구성 과정 연구 - 이저(Iser)의 독자 과정(reading process)에 대한 가추적 설명	국어교육연구(47),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269-292	현대
2021	진솔	아동문학에서 인물의 도덕적 딜레마 인식 및 해소(解消)에 관한 서사적 의미	한국아동문학연구(41), 한국아동문학학회, 53-83	현대
2021	최배은	문화산업 시대 '청소년 이야기'의 확장과 변모	현대문학의 연구(74), 한국문학연구학회, 489-518	현대
2021	최혜령	『무정(無情)』의 계보를 찾아서 -파라텍스트(Paratext)로 돌아보는 이광수 『무정』의 위치	춘원연구학보(22), 춘원연구학회, 157-185	1910-1930년대
2020	김경미	『별건곤』 '5전 잡지'의 매체 전략과 대중성의 역할관계	어문학(148), 한국어문학회, 131-163	1920년대
2020	김민재	경험적 독자 연구로서의 문학교육학에 인지시학 도입의 쟁점과 가능성 - '문학적 경험'에 대한 이론화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46),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89-132	현대
2020	배하은	노동자의 문학 독자 되기 -노동자 계층 독자의 문학 규범 내면화와 전용 양상 연구	상허학보(59), 상허학회, 485-528	1970-1980년대
2020	손동호	『청춘』의 현상문예와 근대 초기 한글운동	인문연구(90),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34	1910년대
2020	손동호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의 신춘문예 연구	우리문학연구(67), 우리문학회, 241-273	1928년-1940년
2020	임진하	보편을 분유(分有) 하는 문학소녀들의 책임기 -전혜린의 독자 노트와 베스트셀러 『데미안』의 탄생	여성문학연구(51), 한국여성문학학회, 251-283	1960대
2020	정영진	식민지 시기 여성 글쓰기의 제도화 양상 연구 -여성 대상 미디어의 독자 투고란을 중심으로	어문론총(84), 한국문학언어학회, 213-244	1910-1940년대
2020	전은경	근대계몽기 잡지의 독자 전략과 역사 전기 서사물 -'을지문덕'의 서사화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79), 한국현대소설학회, 471-510	1900년대
2020	한경희	1960년대 근대화와 '보통' 여성의 문학 행위 - 박완서의 『나목』 창작 및 등단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78), 한국현대소설학회, 365-411	1960-1970년대
2019	강민규, 구영산	문학 작품 광고에 내포된 작품 수용 의식 연구 - 1931년 신문·잡지 수록 광고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63), 한국문학교육학회, 93-123	1930년대
2019	강유진	연제소설과 계재지의 담론적 상관성 연구 - 김승옥의 『보통여자』와 『주간여성』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64), 우리문학회, 7-34	1960-1970년대
2019	김동환	문학능력의 재인식을 위한 제안 - 직무능력으로의 확장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64), 한국문학교육학회, 387-413	문학전반
2019	김준형, 유춘동	1910-1940년대 대중잡지 소재, 재담(才談)과 소화(笑話)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8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85-322	1910-1940년대
2019	김예니	웹소설의 미감과 장르교섭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6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37-56	현대
2019	노태훈	독자를 통한 문학장 형성 기원과 그 한계 - 1934년 『조선중앙일보』의 「독자로부터 작자에게」를 소개하며	구보학보(22), 구보학회, 393-423	1930년대
2019	류동규	타자 이해를 위한 '공감의 플롯' 읽기	국어교육연구(71), 국어교육학회, 237-272	현대
2019	박제익	문학이라는 소꿉놀이: 김동인 초기 문예론 재독	현대문학의 연구(67), 한국문학연구학회, 85-123	1920년대
2019	박형준	전후 〈애국독본〉의 헤게모니 전략과 문화정치	한국문학논총(83), 한국문학회, 287-316	1950년대

2019	소영현	포스트 미투 운동과 '시민-독자'의 자리 : 이후의 삶, 너머의 문학	여성문학연구(47), 한국여성문학학회, 119-150	현대
2019	손동호	식민지 시기 『매일신보』의 신년현상문에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20(2)), 한국근대문학회, 235-270	1910-1930년대
2019	송명진	웹소설로 진화한 로맨스의 잡식성과 그 서사적 특징 - 웹소설 〈소녀, 홍길동〉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64), 우리문학회, 573-597	현대
2019	우신영	문학교육에서 문학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한 시론	문학교육학(64), 한국문학교육학회, 145-180	1960년대
2019	장성규	근대적 지식 개념의 형성과 담화 구성 전략 - 근대 지식 개념의 형성-경합분화(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8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35-260	1900년대
2019	장수경	1960년대 학생독자의 소통욕망과 잡지 - 『학원』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24),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5-39	1960년대
2019	장은영	온라인 문예지의 확장과 공공성의 구현	한국문예비평연구(62),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39-69	현대
2019	전은경	신문을 향유했던 근대 아동 독자들의 이야기	안동학연구(18), 한국국학진흥원, 61-79	1900년대
2019	정은주	김승옥 소설과 가치교육 - 「역사(力士)와 「서울 1964년 겨울」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64), 한국문학교육학회, 227-264	1960년대
2019	최인자	현대소설 기반의 성찰적 정서 리터러시 교육 - 수치심의 정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65), 한국문학교육학회, 167-193	1960년대
2019	최인자	문학 독자의 내면변화를 촉진하는 마음기제로서의 '은유'와 독서 은유 스토리텔링 교육	문학교육학(63), 한국문학교육학회, 275-303	현대
2018	김경민	2인칭 서술로 구현되는 기억윤리공감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8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3-227	현대
2018	김근호	독자로서의 작가 = 최인훈 『화두』의 문학독서현상학	현대소설연구(71), 한국현대소설학회, 5-31	현대
2018	김민수	근대전환기 『제국신문』에 나타난 개인사 광고와 주체의 탄생	우리어문연구(60), 우리어문학회, 41-67	1900년대
2018	김성연	자서전의 시대, 접촉된 자서전 : 1970년대 자서전의 존재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64), 한국문학연구학회	1970년대
2018	김소현	전환기 예술 종합 잡지 『靑色紙』 연구	국어문학(69), 국어문학회, 101-132	1930-1940년대
2018	김은석	'여류문학전집'의 출판 배경과 여성지의 위치	한국근대문학연구(19(2)), 한국근대문학회, 211-235	1960-1970년대
2018	김은하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펄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5), 한국여성문학학회, 7-36	1980년대
2018	길호현	'목적에 따른 독서'의 교육 내용 재구조화 연구	한국언어문화(66), 한국언어문화학회, 61-100	문학일반
2018	손정수	한국 소설의 수용 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비심미적 독서 경향과 그 문학 교육적 의미 -수업 과정에서 쟁터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49), 반교어문학회, 135-164	문학전문
2018	송희복	음독에서 목독으로 이행한 근대 전환기의 소설	국제언어문학(39), 국제언어문학회, 291-321	1910년대
2018	신정은	여성 교육 담론의 변화 양상 연구 - 『제국신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65), 한국문학연구학회, 247-277	1900년대
2018	안용희	신문연재소설 『무정』의 서술전략	한국현대문학연구(54), 한국현대문학회, 195-227	1910년대
2018	유승환	적색농민의 글쓰기	한국근대문학연구(19(1)), 한국근대문학회, 53-106	1930년대

2018	유용태	근대 문학독본류의 미의식과 이데올로기 연구	어문논집(73), 중앙어문학회, 193-231	1910년대 /1930년대
2018	이윤희, 정재찬	독자의 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 원리 - 은유적 관계와 환유적 관계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61), 한국문학교육학회, 237-267	문학일반
2018	이청	등단 시스템의 변화와 복수 등단의 의미	로컬리티 인문학(1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61-286	1900년
2018	전은경	한문단편의 전통과 '웃음'의 근대적 계승 = 근대 계몽기 <독자문예란>을 중심으로	어문학(140), 한국어문학회, 239-268	1900년대
2018	조윤정	국가주의적 희망의 서사를 넘어서기	한국현대문학연구(54), 한국현대문학회, 159-192	현대
2018	허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19(2)), 한국근대문학회, 123-151	현대
2018	홍인영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연구를 위한 시론(試論)	한민족어문학(80), 한민족어문학회, 41-71	문학전반
2017	권두연	『제국신문』 잡보 '하위란'의 형식 실험과 수사적 전략	현대문학의 연구(63), 한국문학연구학회, 195-243	1900년대
2017	김경애	웹소설의 전용과 재매개 양상 연구 -『구르미 그린 달빛』의 드라마화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과 비평(7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417-439	현대
2017	김동환	소설의 여로구조와 치유 기제	문학치료연구(43), 한국문학치료학회, 9-28	현대
2017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51), 상허학회, 15-49	1980년대
2017	박정희	1920-30년대 '릴레이 소설'의 존재방식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51), 한국현대문학회, 261-290	1920-1930년대
2017	신상렬	김동인의 『아담』 잡지를 통해 본 근대 아담의 서사 기획	한민족어문학(57), 한민족어문학회, 245-275	1930년대
2017	엄진주, 문한별	근대전환기 신문 광고의 서술자 분화 양상과 그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70), 현대문학이론학회, 245-268	1900년대
2017	이은선	1910년대 『매일신보』 단편소설에 나타난 '감성' 연구	국제어문(72), 국제어문학회, 131-154	1910년대
2017	이지원	디지털 매체 환경과 문학의 새로운 유통 양상	인문콘텐츠(46), 인문콘텐츠학회, 153-173	현대
2017	이희정	일제말기(1937년-1945년) 『매일신보』 문학의 전개양상 -미디어적 전략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7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5-229	1930-1940년대
2017	장영미	1960년대 아동문학장의 형성과 문학권력 연구 - 신춘문예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33),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133-157	1960년대
2017	전은경	『서우』의 독자 글쓰기와 개인적 고백의 서사	대동문화연구(9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31-268	1900년대
2017	정영진	근대 초기 여성 대상 미디어의 현상모집 일고찰 - 『우리의 가령』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10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21-444	1910년대
2017	최명표	전북 지역 소설문예지의 문학사회학적 연구	한국지역문학연구(6(11)), 한국지역문학연구, 29-79	1920-1930년대
2016	공성수	탐정소설 삽화의 장르적 특성 연구 : 1930년대 김대성의 소설에 수록된 삽화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76), 국어국문학회, 485-531	1930년대
2016	김경미	『별건곤』 서사 독물의 대중성에 대한 매체 전략 연구	어문학(133), 한국어문학회, 239-276	1920-1930년대
2016	김석봉	『매일신보』의 「신년 현상 문예 모집」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48), 한국현대문학회, 265-289	1910-1930년대
2016	김성수	사회주의 교양으로서의 독서와 문예지 독자의 위상-북한 『조선문학』 독자란의 역사적 변천과	반교어문연구(43), 반교어문학회, 77-108	1946-2015

		문화정치적 함의		
2016	김성진, 김미혜	노동문학의 역사적 변화와 문학교육	문학교육학(53), 한국문학교육학회, 35-75	1970년대
2016	김성환	하층민 서사와 주변부 양식의 가능성 -1980년대 논평권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59), 한국문학연구학회, 403-442	1980년대
2016	박슬기	편집자 최남선과 『소년』이라는 매체-심급	사이(SAD)(20),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87-112	1900-1910년대
2016	박정선	근대 소년잡지 『신소년』의 독자투고제도 연구	국어교육연구(60), 국어교육학회, 445-478	1920년대
2016	박종순	전쟁기 아동매체 『소년세계』의 독자 전략과 작문 교육의 의의	한국아동문학연구(30), 한국아동문학학회, 51-95	1950년대
2016	이기훈	1920년대 『어린이』지 독자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역사와 현실(102), 한국역사연구회, 287-322	1920년대
2016	전은경	『독립신문』의 문학적 장치와 공론장에 등장한 독자 -문학과 정치의 상관관계	대동문화연구(9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85-421	1890년대
2016	전은경	근대계몽기 잡지의 매체적 특징과 역사의 서사화 과정	한국현대문학연구(50), 한국현대문학회, 5-40	1900년대
2016	정정순	문학 교육에서의 ‘반응 중심 학습’에 대한 이론적 재고	문학교육학(53), 한국문학교육학회, 253-279	문학일반
2016	최정환	한국 독서사 서술 방법론(1)-독서사의 주체와 베스트셀러 문화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43), 반교어문학회, 13-39	현대
2016	최라영	‘암시된 저자The Implied Author’와 ‘(비)신뢰성(Lin)reliability 문제 고찰	어문학(133), 한국어문학회, 383-412	문학일반
2016	최수일	1930년대 잡지 편집과 문학 독법 -장간 『신동아』론	민족문학사연구(60),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97-328	1930년대
2016	최인자	인성교육을 위한 ‘자기이해와 수용’의 문학 독서 : 박경리 소설 『토지』를 중심	독서연구(41), 한국독서학회, 93-118	1960-1990년대
2015	고현범	마사 누스바움의 연민론: 독서 토론에서 감정의 역할	인간 · 환경 · 미래(15),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123-150	문학일반
2015	김도남	독자의 읽기 프레임 구성 과정 고찰	청람어문교육(55), 청람어문교육학회, 121-150	현대(문학일반)
2015	김동환	소설 읽기 전략으로서의 여로구조 읽기	문학교육학(49), 한국문학교육학회, 145-163	현대(문학일반)
2015	김양선	1960년대 여성의 문학,교양 형성의 세대적 특성 -잡지 (여학생)의 문학기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61), 현대문학이론학회, 27-49	1960년대
2015	김은하	시민적 ‘연애 공론장’의 탄생과 유희의 서사: 50년대 신문연계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34), 한국여성문학학회, 181-204	1950년대
2015	박영기	1950년대 한국전쟁시기 아동잡지의 문학 교육적 양상과 의의 -『아동구락부』, 『소년세계』, 『어린이 다이제스트』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55), 청람어문교육학회, 351-386	1950년대
2015	박정선	『신소년』 독자담화실의 특성과 기능	어문학(128), 한국어문학회, 247-275	1920년대
2015	손예희	문학 작품 오독의 본질과 유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50(1)), 국어교육학회, 348-375	문학일반
2015	임상민, 이경규	계곡 일본의 출판유통과 식민도시 부산의 독자층 연구 -일본인 경영 서점과 염상섭 『만세전』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49), 한국일본근대학회, 201-220	1910년대
2015	장일구	문학사회학의 현대계(제52차 전국학술대회) : 문학+사회@디지털 문화장 -디지털시대 문학사회학테제의 구성 자질 시론	현대문학이론연구(60), 현대문학이론학회, 59-81	현대

2015	전은경	근대개몽기 독자와의 상호소통적 글쓰기와 "서사" 양식의 실험 —『태극학보』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9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79-321	1900년대
2015	전은경	근대 매체의 이중적 사유와 새로운 지식인 독자층의 출현 = 『협성회회보』와 『매일신문』을 중심으로	어문학(130), 한국어문학회, 187-227	1890년대
2015	전은경	근대개몽기 『경향신문』의 편집 전략과 독자 수용 정책	어문학(127), 한국어문학회, 417-453	1900년대
2015	주민재	독자 개념의 형성과 글쓰기의 관계 -김동인의 "참문학"과 상상된 독자 개념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69), 한민족어문학회, 447-476	1910-1920년대
2015	주민재	인터넷 쓰기의 스토리텔링 구조 분석과 새로운 독자 개념의 탐색	작문연구(27), 한국작문학회, 229-258	현대
2015	차혜영	다이제스트 세계문학이라는 소비상품과 미디어 자본의 문화정치학: 1930년대 『삼천리』와 『조광』을 대상으로	상허학보(45), 상허학회, 163-210	1930년대
2014	김승녀	'거리'를 활용한 소설감상교육: 김유정 소설 감상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42), 우리문학회, 321-347	1930년대
2014	신은경	1950년대 "중간소설 전문지" 『소설계』의 지형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까지 초기 잡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71), 민족어문학회, 207-236	1950-1960년대
2014	오현숙	1920년대 아동문학의 독자와 텍스트 미학 연구 -『어린이』 잡지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48), 한민족문화학회, 7-33	1920년대
2014	이미란	문학의 경계넘기와 통섭: 창작론적 비평 방법의 연구(完)완	현대문학이론연구(56), 현대문학이론학회, 53-78	현대
2014	장영숙	『태국신문(帝國新聞)』의 성격과 자료적 가치	동아시아 문화연구(58),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39-266	1900년대
2014	전은경	『대한민보』의 소설 정책과 근대 독서 그룹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44), 한국현대문학회, 47-93	1900년대
2014	전은경	유학생 잡지 『대한홍학보』와 문학 독자의 형성	국어국문학(169), 국어국문학회, 301-345	1900년대
2014	전은경	『쓰이는 텍스트』로서의 『별건곤』과 대중문학 독자의 형성	어문학(125), 한국어문학회, 389-435	1920-1930년대
2014	정계림, 이남호	소설교육에서 "해석의 적절성"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71), 민족어문학회, 237-261	현대
2014	정진석	소설 해석에서 독자 역할의 중층 구도와 소통 방식 연구	문학교육학(43), 한국문학교육학회, 385-416	문학일반
2014	최주한	한국문학의 언어횡단적 실천과 동아시아 :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와 『오도답과여행』	민족문학사연구(55),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33-63	1910년대
2014	최홍원	문학 경험의 구조와 기제 탐구 서설	문학교육학(45), 한국문학교육학회, 519-552	문학일반
2013	김성연	"그들"의 자서전 -식민지 시기 자서전의 개념과 감각을 형성한 독서의 모자이크	현대문학의 연구(49), 한국문학연구학회, 47-83	1920-1930년대
2013	김성환	1970년대 대중 서사의 전략적 변화	현대문학의 연구(51), 한국문학연구학회, 153-192	1970년대
2013	김의곤	2인칭 서술이 작품의 수용에 미친 영향	한국현대문학연구(40), 한국현대문학회, 195-218	현대
2013	오세란	1960년대 독서 환경과 청소년 독자	아동청소년문학연구(12),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83-104	1960년대
2013	오연희	근대문학 정전을 통해 본 근대적 글쓰기의 수사학 -1930년대 문학선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52), 현대문학이론학회, 311-327	1930년대
2013	우한용	디지털시대의 독서와 독서교육의 정체성 디지털	독서연구(30), 한국독서학회, 현대	현대

		시대 독서에 대한 에세이	9-40	
2013	윤영옥	한국 서사문학의 시공간 지각과 서사 전달 방식에 대한 연구 -서사무가, 판소리, 근대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54), 현대문학이론학회, 238-265	1890년대 ~근대초기
2013	이만영	근대적 읽기 관습의 창출과 계도적 미학의 길 -이광수의 문학과 『무정』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5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10년대
2013	이병철	한국사상(韓國思想) 문화(文化) : 근대 신문의 논설 텍스트와 서사 관계	한국사상과 문화(68), 한국사상문화학회, 57-83	1890년대
2013	이승윤	삼천리 에 나타난 역사기록물의 특징과 잡지의 방향성	인문학연구(4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57-480	1920-1940년대
2013	이인화	소설의 허구 세계에 대한 독자 간 의미 교섭의 실천 체계 연구	문학교육학(40), 한국문학교육학회, 363-392	문학일반
2013	전은경	잡지 『소년』의 기획과 독자 전략	한국현대문학연구(41), 한국현대문학회, 663-714	1900-1910년대
2013	전은경	『대한민보(大韓民報)』의 독자관 <풍림(諷林)과 근대계몽기 지식인 독자의 서사적 글쓰기	대동문화연구(8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37-279	1900년대
2013	전은경	근대계몽기 지식인 독자의 '읽기'와 '쓰기'	국어국문학(165), 국어국문학회, 513-554	1900년대
2013	주민재	블로그 쓰기와 다층적 독자 인식	작문연구(17), 한국작문학회, 299-336	현대
2013	차혜영	1930년대-1940년대 '식민지 이중언어문학 장' 국가와 시장을 둘러싼 언어선택과 문학제도의 재편에 관한 고찰	상허학보(39), 상허학회, 121-176	1930-1940년대
2013	최용옥	소설을 통한 독자의 정체성 탐구	한어문교육,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307-338	문학일반
2013	허 윤	1970년대 여성교양의 발전과 전회(轉化): 『女聲』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4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47-89	1970년대
2012	박영기	1910년대 잡지 『새별』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22), 한국아동문학학회, 89-121	1910년대
2012	신종락	전자책과 인터넷 글쓰기로 인한 문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영향	코기토(71),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35-466	현대
2012	안미영	뉴미디어시대 '문학' 독자의 위상과 소설의 방향성	스토리&이미지텔링(4),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68-98	현대
2012	양정실	우리나라 문학교육 연구에서 독자 반응 이론의 수용 현황과 전망	문학교육학(38), 한국문학교육학회, 99-123	문학일반
2012	오양진	부조리의 현실과 수수께끼의 서사—서정인의 「뒷개」에 나타난 서술과 독자에 대하여	국제어문(56), 국제어문학회, 293-320	1960-1970년대
2012	유석환	문학시장의 형성과 인쇄매체의 역할 (1): 1917년 전후의 문학사의 국면	민족문학사연구(48),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75-116	1910-1920년대
2012	윤정화	1980년대 역사소설 『궤주』에 투사된 대중의復古의욕과 유량적 정체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391-410	1980년대
2012	이성준	텍스트의 역동성과 재생산에 대한 시론(試論) - 다른 장르로의 재생산 과정(창작 경험)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41), 한민족문화학회, 269-308	문학일반
2012	임세진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본 김환태 비평 연구	인문학논총(30),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3-53	1930년대
2012	장수경	1950년대 소년잡지에 나타난 문학 창작교육과의 의의 -『새빛』과 『소년세계』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40), 한민족문화학회, 311-340	1950년대
2012	전은경	근대 계몽기 번역문학과 독자층 연구-『춘희』 번역을 둘러싼 한·중·일 독자 경향 비교	우리말글(56), 우리말글학회, 765-802	1910년대

2012	전은경	근대 계몽기 한·일 번역문학과 근대 독자층 비교 연구-『장한몽』과 『해왕성』을 중심으로	어문학(117), 한국어문학회, 231-266	1910년대
2012	전은경	근대계몽기 독자의 서사에 대한 욕망과 재생산적 글쓰기 : 『편편기담』과 구조 학습의 효과	한국현대문학연구(38), 한국현대문학회, 35-82	1900년대
2012	최미숙	기호, 해석, 독자의 문제와 문학교육학	문학교육학(38), 한국문학교육학회, 125-154	문학일반
2011	구인서	1910년대 미성년 독서물의 한글 글쓰기 양상 연구: 신문관 발행 정기간행물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33), 우리문학회, 253-285	1900년대
2011	권두연	소설의 모델, 독자, 작가: 이희철(李熙喆)의 문학적 행보에 대한 고찰	비평문학(42), 한국비평문학회, 35-79	1910-1920년대
2011	김성환	『어둠의 자식들』과 1970년대 하층민 글쓰기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34), 한국현대문학회, 359-397	1970년대
2011	김성환	1970년대 논픽션과 소설의 관계 양상 연구 - 『신동아』 논픽션 공모를 중심으로	상허학보(32), 상허학회, 13-61	1970년대
2011	김영민	근대 매체의 독자(讀者) 창작 참여 제도 연구(1)	현대문학의 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97-128	1900-1910년대
2011	엄숙희	『이야기』의 소설적 수용과 의미 : 김동리의 「무너도」를 중심으로	국어문학(51), 국어문학회, 142-168	1930년대
2011	이희정	1920년대 『매일신보』의 독자문단 형성과정과 제도화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33), 한국현대문학회, 97-133	1920년대
2011	이희정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연구(2) = 후반기 연재소설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48), 한국현대소설학회, 285-319	1920년대
2011	이태숙	여자 유학생의 근대인식과 공유장: 〈여자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59), 국어국문학회, 353-374	1910-1920년대
2011	전은경	『만세보』의 〈독자투고란〉과 근대 대중문학의 형성 = 이인직의 『혈의 누』와 『귀의 성』을 중심으로	어문학(111), 한국어문학회, 359-388	1900년대
2011	전은경	근대 계몽기의 신문 매체와 “독자” 개념의 근대성 -번역어 “독자”의 성립 과정과 의사소통의 장	현대문학이론연구(46), 현대문학이론학회, 175-200	1900년대
2010	구자황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 글쓰기 장(場)의 재인식; 근대 독본의 성격과 위상(3) -1930년대 독본(讀本)의 교섭과 전변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29), 반교어문학회, 5-32	1930년대
2010	김미영	김발봉의 《密林》과 《절레꽃》의 독자수용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고찰	어문학(107), 한국어문학회, 219-243	1930년대
2010	노지숙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 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30), 345-375	1950년대
2010	서은주	제도로서의 “독자”; 1950년대 대학과 “교양” 독자	현대문학의 연구(40), 한국문학연구학회, 7-39	1950년대
2010	이시은	제도로서의 “독자”; 1950년대 “전문 독자”로서의 비평가 집단의 형성	현대문학의 연구(40), 한국문학연구학회, 149-174	1950년대
2010	장도준	독자반응이론에 대하여	한국어문연구(19), 한국어문연구학회, 207-245	문학일반
2010	장미영, 이호준	문학작품 독자의 주관적 재미 요소 연구	인문콘텐츠(18), 인문콘텐츠학회, 73-100	현대
2010	전은경	『대한매일신보』의 〈편편기담〉과 ‘쓰는 독자의 출현	한국현대문학연구(30), 한국현대문학회, 71-102	1900년대
2010	전은경	제도로서의 “독자”; 근대 초기 독자층의 형성과 매체의 역할 -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40), 한국문학연구학회, 40-74	1900년대
2010	조윤정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 글쓰기 장(場)의 재인식; 독본의 독자와 근대의 글쓰기	반교어문연구(29), 반교어문학회, 97-139	1900-1945
2010	홍인숙	근대계몽기 지식, 여성, 글쓰기의 관계	여성문학연구(24), 한국여성문학학회, 57-86	1900년대



2009	김석봉	개화기 서사 문학의 독자 진유양상 연구	한국문화(4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17-134	1890-1910년대
2009	노지승	여성지 독자와 서사 읽기의 즐거움 = 『女性』(1936-1940)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42), 한국현대소설학회, 101-135	1930년대
2009	노지승	〈自由夫人〉을 통해 본 1950년대 문화 수용과 젠더 그리고 계층	한국현대문학연구(27), 한국현대문학회, 305-338	1950년대
2009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신춘문예와 추천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365-435	1950년대
2009	이태숙	1920년대 '연애'담론과 기획출판: 《사랑의 불꽃》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27), 한국현대문학회, 7-30	1920년대
2009	장수경	『학원』의 "학원문단"과 "학원문학상"의 의미-독자 투고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38), 현대문학이론학회, 263-285	1950-1970년대
2009	장수경	『학원』지 독자투고에 나타난 산문의 경향과 의미 고찰	비평문학(34), 한국비평문학회, 255-280	1950-1970년대
2009	정옥년	문학과 독서의 상생적 조망; 읽기에서의 감정과 문학적 읽기	독서연구(22), 한국독서학회, 9-48	문학일반
2009	최배은	근대 소년 잡지 『어린이』의 '독자담화실' 연구: '세대 간 소통 양상과 기능'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2), 세계한국어문학회, 71-105	1920-1930년대
2009	한래희	김현비평에 나타난 독서행위와 반성적 주체 연구	국어국문학(153), 국어국문학회, 313-348	1960년대
2008	김경남	『신여성』 잡지를 통해 본 1920년대 여성관의 변화와 여자 교육	우리말글(43), 우리말글학회, 237-259	1920년대
2008	김성진	소설교육에서 해석의 다양성 문제 재론	우리말글(42), 우리말글학회, 155-180	1910년대
2008	김연숙	서사물의 통속적 기획과 감정의 컨텍스트(context)	국어국문학(149), 국어국문학회, 549-575	1920년대
2008	이선미	『여원』의 비균질성과 '독신여성' 담론 연구: 1950(55-58)년대 『여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3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51-81	1950년대
2008	이선옥	『여원』의 중심 담론과 여성들의 글쓰기 - 여류현상문예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19), 한국여성문학학회, 337-369	1950-1970년대
2008	전명희	한국 소년소설의 형성과 전개양상 = 장르의 역사적 기반과 흐름에 대해	한국아동문학연구(15), 한국아동문학학회, 5-27	1910-1990년대
2008	전은경	'창씨개명'과 『총동원』의 모성담론의 전략	한국현대문학연구(26), 한국현대문학회, 357-389	1940년대
2008	전은경	20년대 독자들의 '쓰기' 욕망과 〈개벽〉의 〈독자란〉	현대소설연구(39), 한국현대소설학회, 289-313	1920-1930년대
2008	천정환	한국문학전집과 정전화: 한국문학전집사(초)	현대소설연구(37), 한국현대소설학회, 85-124	1945-현대
2007	김양선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과 『여원』	여성문학연구(18), 한국여성문학학회, 62-91	1950-1960년대
2007	박숙경	신문관의 소년용 잡지가 한국 근대 아동문학에 끼친 영향	아동청소년문학연구(1),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115-138	1900-1910년대
2007	서연주	여성 소비계층에 대한 담론 형성 양상 연구	여성문학연구(18), 한국여성문학학회, 93-130	1950-1960년대
2007	이영아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 과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23), 한국현대문학회, 43-81	1910년대
2007	이유미	근대초기 신문소설의 여성인물 재현 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8(2)), 한국근대문학회, 75-98	1890-1900년대
2007	이주나	『소년(少年) 지(誌)』의 문체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00-1910년대
2007	임경순	구성주의와 독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학적 독서연구(18), 한국독서학회, 문학일반	독서연구(18), 한국독서학회, 문학일반	문학일반

		스트 읽기	71-95	
2007	임은희	1950-60년대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	여성문학연구(18), 한국여성문학학회, 131-160	1950-1960년대
2007	장미영	여성 자기서사의 서사적 특성연구-『어원』 수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18), 한국여성문학학회, 161-194	1950-1960년대
2007	정래필	자전 소설의 읽기 방법 연구	독서연구(18), 한국독서학회, 225-253	현대
2007	정혜원	1910년대 아동잡지의 계몽성 변화양상	돈암어문학(20), 돈암어문학회, 261-290	1910년대
2007	최지현	문학 독서의 원리와 방법	독서연구(17), 한국독서학회, 63-82	문학일반
2007	황혜진	잡지 청춘(靑春) 독자투고란의 어문교육사적 연구	작문연구(4), 한국작문학회, 145-172	1910년대
2006	김명석	멀티미디어 시대 한국소설의 존재방식	우리문학연구(19), 우리문학회, 309-330	현대
2006	김찬기	근대개몽기 단행본 소설 출판물의 현황과 그 성격	현대소설연구(29), 한국현대소설학회, 31-56	1890-1910년대
2006	김한식	잡지의 서적 광고와 내면화된 근대 - 『청춘』과 『개벽』을 중심으로	상허학보(16), 상허학회, 119-152	1910-1920년대
2006	김현숙	근대매체를 통해 본 '가정'과 '아동' 인식의 변화와 내면형성	상허학보(16), 상허학회, 69-93	1920년대
2006	이남호	우리 시대의 독자는 누구인가 -전자문화시대의 독자의 성격	독서연구(16), 한국독서학회, 9-20	현대
2006	이재복	신춘문예의 문학제도사적 연구	한국언어문화 29, 한국언어문화학회, 365-391	1910-1920년대
2006	이종복	읽기교육에 있어서 문학적 접근 : 독자 반응 이론	현대영어영문학(50(1)),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47-263	문학일반
2006	이희정	1910년대 『매일신보』 변안·번역 소설의 전개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19), 한국현대문학회, 119-159	1910년대
2006	전은경	1910년대 『매일신보』 소설 독자층의 형성과정 연구 - 〈독자투고란〉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29), 한국현대소설학회, 107-132	1910년대
2006	최기숙	『신대한소년』과 『아이들보이』의 문화 생태학 - 『소년』과 『아이들보이』를 중심으로	상허학보(16), 상허학회, 215-247	1900-1910년대
2006	최병우	전자매체시대의 독자	독서연구(16), 한국독서학회, 55-75	현대
2005	배정상	『독립신문』의 독자투고와 서사적 논설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5, 한국문학연구학회, 329-361	1890년대
2005	정승욱	대중문학시론-새로운 논의를 위한 하나의 별견(瞥見)	강원인문논총(13), 강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5-223	문학일반
2005	전은경	1910년대 이상협 소설과 식민 지배 담론 = 『매일신보』 독자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25), 한국현대소설학회, 381-405	1910년대
2005	천정환	주체로서의 근대적 대중독자의 형성과 전개	독서연구(13), 한국독서학회, 209-235	1910-1930년대
2004	김영민	근대개몽기 신문의 문체와 한글 소설의 정착 과정	현대문학의 연구 22, 한국문학연구학회, 47-88	1900년대
2004	김옥란	근대 여성 주체로서의 여학생과 독서체험	상허학보(13), 상허학회, 245-276	1920-1930년대
2004	박지영	〈신여성〉지의 '독자투고'문을 통해서 본 '여성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 만들어지는 글쓰기, 배제된 글쓰기의 욕망	여성문학연구(12), 한국여성문학학회, 339-374	1920년대
2004	선주원	자전적 소설 읽기와 소설교육 -서사적 정체성 구	독서연구(12), 한국독서학회, 1	문학일반

		현을 중심으로	145-174	
2004	이용남, 홍성식, 정명호	일본 강점기 대중문예창작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한국현대문학연구(16), 한국현대문학회, 279-337	1920-1940년대
2004	전은경	조일재 신문연재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여성관 -1910년대 신문, 작가, 독자의 상호소통성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23), 한국현대소설학회, 341-364	1910년대
2003	이정옥	대중문학과 독자	대중서사연구(9(2)), 대중서사학회, 7-33	문학일반
2003	임선숙	패러디 소설의 수용미학적 고찰 - 최인훈의 〈옹고집뉘〉 〈놀부뉘〉을 중심으로	국문학논집(19),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87-212	1960년대
2003	조영복	1930년대 신문(新聞) 학예면과 모국어(母國語) 체험	어문연구(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73-197	1930년대
2003	최경희, 박혜수, 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3):근대편	여성문학연구(9), 한국여성문학학회, 233-274	1920-1930년대(자서전)
2002	손정수	문인과 독자의 교류 방안을 위한 시론	문학교육학(10), 한국문학교육학회, 61-73	현대
2001	박정애	근대적 주체의 시선에 포착된 타자들: 염상섭, 「만세친」의 경우	여성문학연구(6), 한국여성문학학회, 54-80	1910년대
2001	신용철	해석학과 문예비평 = 가다머와 아우스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연구(54), 철학연구회, 255-271	문학일반
2001	이기훈	독서의 근대, 근대의 독서-1920년대 책읽기	역사문제연구(7), 역사문제연구소, 11-71	1920년대
2001	이정옥	감상주의 연애소설의 상품화 전략	여성문학연구(6), 한국여성문학학회, 226-251	현대
2001	천정환	1920~30년대 소설독자의 형성과 분화과정	역사문제연구(7), 역사문제연구소, 73-100	1920-1930년대
2000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의 독자 연구	인문학연구(7),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40	1950년대
2000	최혜실	디지털 서사(e-narrative)의 현황과 전망	한국현대문학연구(8), 한국현대문학회, 33-56	현대

<Abstract>

## A Study on the Achievements and Prospects of Reader Studies in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Novel Literature

Jun, Eun Kyung

This paper analyzes studies about novel readers related to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novels and narratives published from 2000 to 2023. During this period, the data on published studies about novel readers were compiled to investigate the quantitative status, including the number of studies per year, the periods of focus in reader-related research, the subjects analyzed in reader studies, and the categorization of specific reader groups. Additionally, the paper categorizes and examines the most frequently utilized research methods, such as reader reception/response criticism, reading theories, media theories, feminist theories, and cultural theories. Furthermore, each methodology's discussions are reviewed, and th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studies about novel readers are summarized.

Wolfgang Iser has discussed the incompleteness of the text, stating that it is the reader who fills in the gaps and spaces within the text, thereby emphasizing the role of the reader. If there is no perfect text or perfect interpretation, the text will be constantly reproduced and reinterpreted by individual readers. I believe the same applies to studies about novel readers. Discussions about how readers are perceived, evaluated, and their roles will also be continuously reproduced and reinterpreted by individual

researchers. Moreover, within this ongoing process, the literary history of readers can also be newly created.

Therefore, studies about novel readers can reconstruct the literary history of the novel in novel ways. It appears that a variety of approaches to reader studies, rather than being confined to a single theme, should be pursued. Among such studies, there is a need for a comprehensive exploration of active agents, the readers, in the context of novel literature. This is because readers not only exist as objects of reading the text but also play an active role as respondents, actors, and vocal participants, even taking on the role of producers of literature. Ultimately, studies about novel readers have the potential to serve as a driving force in narrating the new literary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novels.

Key words: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Novel Literature, Novel Literature History, Reader Literature History, Studies about Novel Readers, Reader Reception Theory, Reader Response Theory

투 고 일: 2023년 7월 31일

심 사 일: 2023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9월 18일